승려복지 숙원 '스님 전문 요양병원' 문 열다

조계종,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조계종과 의료법인 인덕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종단 직영으로 전환한 파라밀요양병원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것.

5월 3일 안성시 죽산면에 자리한 아미타불교요양병원서 열린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등 원로스님들,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6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했다.

앞서 의료법인 이사장이었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총무원에 운영을 제안하면서 업무협약이 급물살을 탔다.

의료법인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 자승 스님은 이날 법인 대표이사인 총무부장 호산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종단 직영 요양병원의 개원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자승 스님은 "전문 의료진과 쾌적한 시설을 갖춘 승려 요양병원의 개원으로 마침내 종단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됐다"며 그동안 요양병원을 이끌어온 故각현 스님과 성운 스님의 원력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 등 600여 대중 축하
故각현 · 성운 스님 원력 계승
"종단 숙원사업 중 하나 해결"
원활한 운영 위한 후원금 답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요양병원 개원과 더불어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할 수 있는 승려복지제도 확대를 천명했다. 스님은 "앞으로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며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 신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성운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고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성운 스님은 "종단 직영 덕분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까지 아우르는 불교복지 마스터플랜을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지만 오늘의 공로패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제시한 핵심 종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개원식에는 여러 스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의료법인 조계종승려복지 이사장 진우 스님과 내빈들이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많은 스님들이 노후에 갈 곳이 없어 걱정해왔는데 이번 요양병원 개원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요양병원을 이끌어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교구본사를 비롯한 여러 사부대중이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많은 스님들이 요양병원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학용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 홍기현 경기남부 경찰청장 등도 축사를 전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개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원하는 각계의 후원도 잇달았다. 지난달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총 1억4000만원,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도 후원금을 전했으며, 안성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4000만원을 약정했다. 또 조계사 · 봉은사 · 도선사가 매달 쌀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국사 원로의원 종상 대종사,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 안성불교사암연합회장 해월 스님 등도 후원금을 기탁했다.

특히 주식회사 페데스탈코리아는 1억여 원에 달하는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희사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정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원식 이후에는 자광 대종사와 진우 스님, 김동연 지사 등이 새 단장을 마친 4층을 돌아보며 기존보다 한층 개선된 시설에 놀라움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리모델링 전과 비교하면) 병실이 스위트룸이 된 것 같다"며 승려노후복지 발전을 위해 보다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조계종 스님들을 우선 대상으로 입원 절차를 밟게 되며,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갖춘 비구니 스님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병원불자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쾌척 잇달아

천안 각원사 1000만원 전달
평택 명법사 1억 원 쾌척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는 5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기독교세가 강한 천안에서 각원사가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지역 불교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불교는 우리 민족과 1700년을 함께하며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다. 앞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천일기도에 입재한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종단 목적불사에 힘을 모아준 각원사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원 대종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성스러운 불사"라면서 "깊은 역사와 함께 국민의 정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는 5월 2일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는 5월 3일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근대불교 선지식인 용성 진종 조사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명법사가 설립한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이사장 화정, 이하 실천회)도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실천회 이사장이자 평택 명법사 회주인 화정 스님은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펼쳐온 핵심 종책 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줘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사장 화정 스님은 "욕심 버리는 수행을 하면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사찰을 만들고 있다"면서 "용성조사 유훈인 만중생의 성불인연을 맺기 위한 보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1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 9명 위촉

문화재청 위촉식…본지 사장 혜도 스님 궁능분과위원

위촉 前 위원들 총무원장 예방
진우 스님 "성보 외호" 당부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제31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 9명이 위촉됐다.

문화재청은 5월 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30일까지.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구성돼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 ·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스님은 총 9명이다. 건축분과에 문화부장 탄원 스님, 동산분과에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적분과에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 천연기념물분과에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매장분과에 김해 성조암 주지 허허 스님, 근대분과에 안양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 민속분과에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세계유산분과에 서울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궁능분과에 본지 사장 혜도 스님이다.


제31대 문화재위원 스님들은 5월 1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위원 스님들은 5월 1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성보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는 것은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맡은 자리에서 성보 외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재위원장으로 강봉규 경주대 특임교수가 선출됐다.

신성민 기자

대흥사 주지후보에 법상 스님 단독출마

5월 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후보로 현 주지 법상 스님<사진>이 단독출마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5월 12일 대흥사 산중총회를 앞두고 5월 2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법상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월 9일 회의를 열고 법상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심사가 확정되면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스님의 당선은 확정된다.

법상 스님은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2019년 종덕 법계를 품수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김주일
편집국장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김주일 편집국장님은 훌륭한
언론인이자 신심깊은 불자였습니다.

김주일 편집국장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과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